

“한국당은 극우정당” vs “블랙리스트 궤변”

민주, 전당대회 비판... 한국당, 환경부 파상공세 여야 대치정국 갈수록 심화... 국회 정상화 '먼 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한국당을 '극우'로 몰아 세우며 공세를 강화한 반면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내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멀어져가는 분위기다.

◇민주당=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을 집중 공격했다. 이는 한국당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

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장은 "한국당 '당대표 후보 되기'는 극한직업"이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발언 내용이 5·18을 모욕하고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의 케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며 방어막을 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며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여러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주려 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한국당='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정조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갈날을 들이대고 현재의 의혹에 대해선 '체크리스트'라고 말장난을 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전날 발언과

관련, "스스로 먹칠을 하고는 무엇을 더 먹칠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고 힐난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대판 살생부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먹칠을 했다"며 "청와대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강경한 대어(對英) 투쟁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 관련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제2의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모든 방법 총동원해 선거제 개혁”

심상정 정개혁위원장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위원장은 21일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선거제 개혁과 관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이 끌려다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무시"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며 "의회민주주의에 일반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

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당 당원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제는 경쟁의 물이니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하지만, "그것도 링 안에 들어올 때 합의를 하는 것이지, 아예 안도 내놓지 않고 어깃장 놓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의 전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당의 처분에 맞기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또 다시 국권을 기만하는 일이 이번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합법적인 수단이지,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위원장을 만난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 4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40·50 힘 냅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임종성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복심’ 양정철 복귀하나

이달말 귀국...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제안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중 귀국한다. 양 전 비서관은 귀국하면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2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양 전 비서관이 이번 달 안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 당에 복귀해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당 지도부는 올해 초 양 전 비서관이 한국에 들렀을 때 이미 한 차례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도 양 전 비서관이 복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며 "일단 돌아오면 민주연구원장만 한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전혜철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린다. 이들에

겐 이른바 '3철'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그러나 양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일본·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작가로 활동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정치권 복귀를 결심한 만큼 내년 총선 출마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양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을 맡게 되면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권 외곽에 재배치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또다른 측근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 이사장은 현 정부 정책 등을 소개하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 전 비서관도 민주연구원에 오게 되면 유 이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사연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신뢰 회복 기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특위 간담회...한유총, 반대집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 등에 논의했다.

남민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월부터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초석인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올해부터는 건축 적립금, 통학 차량 적립금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회장은 "에듀파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망설였던 게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

여줬으면 한다"며 "전사연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3월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시연행사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사연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사립유치원 단체 2곳만 참석했다. 한유총은 나오지 않았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이른바 '표준 유아 교육비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지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